

김은숙 작가 '미스터 션샤인' 주연 이병헌

“역사극이지만 외국서도 통할 듯”



항일투쟁 소재 눈길 ... tvN 7월 7일 첫 방영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 (사진) 첫 방송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26일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제작발표 회에는 이병헌, 김태리 등 출연진과 제작진이 참석했으며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미스터 션샤인'은 '태양의 후예' (2016), '도깨비' (2016-2017) 등 무수한 히트작을 낳은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다. 연출은 김 작가와 오래 호흡을 맞춘 이은복 PD가, 제작은 '도깨비'의 화앤담 픽처스가 맡았다.

이병헌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이뤄진 1905년 미국의 이권을 위해 조선에 주둔한 검은 머리의 미국 해군장교 유진 초이를, 김태리는 조선의 정신적 지주인 고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 애신 애기씨를 연기한다.

2009년 '아이리스' 이후 9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이병헌(48)은 "김은숙 작가, 이은복 PD 드라마인데 안 할 이유가 없었다"며 제작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김은숙계 언어"란 게 따로 있나 생각이 들 만큼 대본을 처음에 봤을 땐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또 당시에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해되는 대사들도 있다. 묘한 힘을 가진 작가"라고 덧붙혔다.

이어 "저는 사실 TV로 연기생활을 시작했다. 영화를 계속 해왔지만 중간중간 '울인', '아이리스' 등 드라마를 했다. 팀은 길었지만 늘 오픈된 마음으로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혔다.

그는 항일투쟁이라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련 소재를 다룬 작품은 많았지만 1900년대 초반을 조명한 드라마는 많지 않았다. 가장 급변기였던 시기, 그리고 미국인 캐릭터는 저도 처음 맡아본다"며 "조선의 애국자가 아닌, 오히려 반감이 큰 인물인 게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은 스무살 아래 김태리와 호흡하는 데 대해서는 "물리적인 나이 차는 많이 나지만 연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의식되지 않는다"며 "아주 좋은 감성을 갖고 연기하는, 매우 훌륭하고 좋은 배우"라고 칭찬했다. 그는 외국에서 작품 경험이 많은 배우로서 '미스터 션샤인'이 해외에도 소구하는 지점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는 "굉장히 큰 역사, 정치적인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중점으로 다룬다"며 "한국의 역사에 문외한이고 정보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병헌과 모던 연예사를 그릴 김태리(28)는 이번이 첫 드라마 출연이다. 그 역시 "작가님, 감독님을 보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영화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참 좋은 선배님들과 작업했다. 개인적으로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축복인 일은 없다"며 "이병헌 선배님은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불편한 게 전혀 없었다. 스스로도 유머 감각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하신다. 즐겁게 촬영했다"고 웃으며 덧붙혔다. 자신이 맡은 애신 역에 대해선 "최고 명문가 자제

이자 한편으로는 투사인 인물"이라며 "이쪽을 따를지 저쪽을 따를지, 복잡한 서사를 가진 인물이라 단면적으로 풀어내지 않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스터 션샤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방송돼 눈길을 끈다. 역사가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무명 의병들의 항일투쟁사를 되새기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미니시리즈보다 배 이상의 제작 기간을 둔 덕분에 이날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화려한 영상미와 꼼꼼한 고증을 토대로 한 의상과 세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목 '션샤인' 역시 '션샤인'을 일제강점기 한글 표기 식으로 쓴 것이다.

방송 전부터 넷플릭스와 방영 계약을 하는 등 성과를 낸 것도 이런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덕분으로 보인다.

최근 지상파와 비지상파 구분 없이 빅 히트를 친 드라마가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 션샤인'이 지난해 '도깨비'만큼의 높은 시청률과 화제를 모을지 관심을 끈다.

오는 7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일 9시 방송. /연합뉴스

홍수아, 5년만에 안방극장 복귀

KBS '끝까지 사랑' ... 내달 방영



배우 홍수아(32·사진)가 5년 만에 국내드라마에 복귀한다.

홍보사 플레이스는 홍수아가 KBS 2TV 저녁 일일드라마 '끝까지 사랑' 주연을 맡는다고 26일 밝혔다.

'끝까지 사랑'은 지극히 사랑했지만 아플 수 없이 이별한 사람들이 일생 하나뿐인 사랑을 지켜내고 끝내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홍수아는 아름다운 가면 속에 본심을 숨기고 치밀한 설계를 통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차근 차근 실행하는 악녀 강세나 역할을 맡는다.

홍수아는 2014년 중국에 진출해 드라마 '은주랑가인', '역만계승인'과 영화 '원령', '눈이 없는 아이' 등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국내 드라마 출연은 2013년 '대왕의 꿈' 이후 5년 만이다.

극중 강세나의 오빠 강현기는 심지호가 연기한다. 여주인공 한가영 역은 이영아가 캐스팅됐다. 강현기는 한가영과 얽히면서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게 된다.

'인형의 집' 후속으로 다음 달 방송. /연합뉴스



수지 팬미팅 투어 성황

7월 7일 서울서 피날레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가 7월 서울에서 첫 번째 아시아 팬미팅 투어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수지가 7월 7일 오후 7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에스24라이브홀에서 팬미팅 투어 '위드' (WITH)를 마무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지는 지난달 12일 대만 타이베이와 26일 홍콩, 이달 24일 태국 방콕 등지에서 팬미팅을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났다.

방콕 팬미팅에서는 '홀리데이', '소버

(SOber)',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등 수록곡과 현지 인기 드라마 OST 곡을 들려주고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커브 댄스로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토크 타임,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코너, 퀴즈 게임 등으로 팬들과 소통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팬들과 손을 마주치는 '하이타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documentaries, and entertainm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2 columns: Hour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 Provides daily horoscope readings for each hour.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专线" ☎010-9790-8237